

# 광양시 벤처기업 전폭 지원 17개사 창업 성과 창출

### 벤처기업센터 집중 투자...지난 10년간 창업 및 기술개발 성공

광양시는 지난 10년간 운영한 '벤처기업센터'가 예비 기업인 창업과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기업센터를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절강 부품업체를 비롯한 21개 벤처기업을 지원한 결과 17개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광양시 벤처기업에서 창업한 17개사는 △㈜아이티엘 △세동산기(주) △ ㈜에코비전 △ ㈜비엔씨 △현시스템(주) △마린블리스 △ ㈜원천 △가면초 △ ㈜엔텍 △ ㈜상우엔지니어링 △ ㈜플라리스 △ ㈜에스엔에스아이엔씨 △ 크레이즈 △ ㈜사우나컴퍼니 △ ㈜에너텍글로벌 △ 네오켓 스튜디오 △ ㈜다울이다.

특히 ㈜에너텍글로벌은 중소벤처기

업부 창업성장기술 공모에 '보일러 불순물 제거 국산화 제품개발 R&D 발굴' 사업이 선정되면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보이며,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체 크레이즈는 특허출원 2건과 상표출원 1건 등 산업재산권을 획득했다.

광양시 컨부두 사거리 황금빌딩 5층에 위치한 벤처기업센터는 2009년부터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벤처기업센터에는 5개 기업(1개 기업당 약 10㎡)이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입주한 기업에 사무공간과 함께 책상, 캐비닛 등 비품 일부와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2년에 사업성

과 심사를 거쳐 1회 연장할 경우 최대 4년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술상담, 자문 지원, 시제품 생산, 장비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창업으로 성장한 이들 기업에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기술사업화(R&BD) 지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우대관리 지원, 시 지원사업 등 시제품 사업화에 성공하고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구례군-서울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구례군은 21일 구례군청 2층 상향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통해 양 지역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협약사항은 5개 분야로 ▲구례군 농·특산물 납품, 판매 운영 확대 ▲지역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청소년 전통·문화·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양 지역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물적교류 활성화 등이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곡성군, 청년농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곡성군은 지난 20일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2030세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청년농업인 40명이 참여해 농업경영컨설팅 전문가로부터 경영장부 사용법 및 온라인 유통

의 중요성을 학습했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통해 품목에 따라 상세하게 진행됐고, 교육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곡성군 농정과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농업을 선택한 청년농업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승계농이 아닌 창업 청년농인만큼 정착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세심하게 청년 지원 사업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농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곡성군은 청년농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청년농업인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김평휘 기자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 성료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고흥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뮤지엄 캠프는 분청사기를 주제로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 전파하기 위해 역사교육, 전시체험, 스포츠 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역 어린이들이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계기로 마련되어, 초등학생 28명

의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 1일차에는 분청문화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을 관람하고 나만의 소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친구와 즐거운 물총 서바이벌, 장기자랑 준비, 뉴스포츠 체험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저녁에는 분청문화공원 산책과 별빛 관측 등을 진행하였다.

2일차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종이컵 사용 줄이기 운동을 알리고, 고흥 분청사기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분청사기 컵 제작하는 체험하였으며, 이후 고흥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틀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한윤섭 기자

## 보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21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 논의를 위해 관내 수렵협회 회장 및 총무들과 간담회 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피해방지단의 상반기 활동상황을 분석하여 하반기 운영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어 시점에 신속한 포획 활동을 당부했으며, 보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총기 안전 관리 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 실시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활동 애로사항 청취로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피해방지단 김모 씨는 "주민에게 자원봉사 한다는 마음으로 수년간 포획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포획단원들을 합부로 대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고뇌를 밝히기도 했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인 포획활동 지원을 위해 포획보상금으로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 고라니는 3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8월 현재 멧돼지 96마리와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을 꼼꼼히 세워 주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보성군은 농어민들에게 포획트랩을 무료로 임대하고, 전기유터리 설치 등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 순천시 '햄프씨드 특화작물'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



순천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관내 농업인들이 1만 7천평 규모의 햄프씨드 재배에 관한 허가를 통해 수확한 씨앗으로 4천만원 상당의 농업소득을 올리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햄프씨드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작목반을 구성하여 ㈜그린리쉬농업회사법인(대표 윤정훈)과 계약재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관련 회사는 대마씨 탈각기술, 전처리 기술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농가소득 향상 등 순천시를 대표하는

특화작물로 키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햄프씨드는 생명력이 강하고 병충해가 없어 농약이나 살충제 없이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 유기농, 무농약 인증이 다른 작물에 비하여 쉽다.

또한 6월 중순경 심어 10월 말이면 수확이 가능하므로 날씨가 따뜻한 전남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며, 감자의 후작작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여럿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주로 삼베를 생산하기 위하여 햄프(대마)를 재배 해 왔으며 1970년까지 면적이 900만평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대마관리법 제정으로 통제되었고, 삼베의 가격 하락으로 면적은 축소되었다.

지난 2015년 식약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햄프씨드 산업화를 위

한 기틀이 마련되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시작됨으로써 첫 해에 6,000톤, 1,500억 시장이 형성되어 국내 대마씨앗 시장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햄프씨드는 타임지가 선정한 6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다양한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 3, 6, 9가 모두 들어있으며 WHO가 권장하는 비율인 1:3:1을 자연적으로 함유함으로써 혈액순환,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피부미용 개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작목반 관계자는 "햄프는 식품 자체에서 항균력이 강해 도양 개량 효과가 높으며 농약을 할 필요가 없어 환경보존과 노동력 감소 등 작물을 재배하기도 용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